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 0985-32-8457 Fax: 0985-32-8512 Homepage: <https://www.mif.or.jp> E-mail: miyainfo@mif.or.jp

개관시간: 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 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국제플라자 휴관일 안내

2020년 5월 3일(일)~5월6일(수)는 휴관합니다.

사업의 중지

4월7일로부터 당협회의 사업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잠시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5월 실시 예정이었던 연기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어강좌 · 초급
- 일본어 연습회
- 챗트(영어 · 중국어 · 한국어)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대응 가능한 언어(번역기·전화 통역으로 대응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크메르어, 알기 쉬운 일본어

대응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 10:00 ~ 19:00

TEL: 0985-41-5901

FAX: 0985-41-5902

E-MAIL: support@mif.or.jp

URL: <https://www.mif.or.jp>



URL

Facebook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부터의 안내

3월, 4월, 5월 또는 6월에 재류기간 만료일을 맞이하는 분들께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하여 재류 신청 창구가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법무성으로부터 안내입니다. 또,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신청접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재류신청 창구의 혼잡 완화 대책으로서 3월 4월 5월 또는 6월 중에 재류기간 만료일(주의)을 맞이하는 재류 외국인(「특정활동(출국 준비기간으로)」 재류하는 외국인 은 제외)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및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 등에 대하여서는 해



URL: <http://www.moj.go.jp/>

*문의사항은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로!

JFe-러닝

통학이 안된다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에린이 도전! 일본어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무료 일본어 학습 사이트입니다.

동영상과 음성 등의 콘텐츠가 한가득



<https://www.erin.ne.jp/>



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의 업무내용

【상담】

센터 상담원에 의한 상담

외국인을 위한 생활 법률 상담회(수시)

(변호사 행정서사가 생활에 관한 상담에 대응합니다)

생활 상담원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생활 상담(수시)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타갈로그어 · 포르투갈어 · 베트남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출장 상담회(현내 각 시정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출장 상담회는 잠시 동안 휴식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외국인을 서포트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에도 대응합니다.



나는 이걸로 극복한다! ~나의 코로나 대책~

지금,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보내는 것이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들어가 있는것이 답답한 매일, 견딜 수 없어! 언제까지 계속 되는건지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Q : 자택 대기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요?

A:

책 속에서 여행을 합니다.

과거에 여행했던 나라의 가이드 지도와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잠기거나, 아직 보지 못한 세계 여행기나 사진집, 여행회사로부터 받은 팸플렛을 보면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



A:

오랜 시간동안 어두운 장롱 속에 들어가

있던 재봉틀이 빛을 발하는 날이 드디어 왔다.

일회용 마스크가 부족한 가운데 현재, 수제 마스크를 만들기 붐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등장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재봉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인 지금, 재봉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직접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보는건 어떨까요? 미싱이 없어도 직접 손으로 꿰매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유튜브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S)



A:

첫번째로는 먹기, 두번째는 읽기&보기, 세번째는 고양이입니다.

우선, 직접 요리를 해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다음에는 책이랑 동영상으로 울고 웃으며 마음에 비타민을 투여, 마지막에는 야옹이들과 마음껏 놀고 싶었던 것, 괴로웠던 것을 전부 망각의 저편으로 보낸다. 이것이 저의 건강법입니다.(F)



A:

최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라디오로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 하면 라디오

체조 제1, 제2의 동영상이 있어서 음악과 함께 실내에서 체조를 합니다. 정원으로 나와 푸른 하늘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상쾌하지요.(K)



A:

저에게 있어서 테니스는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집에서는 테니스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욕구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최근 봉쇄령 조치가 떨어진 나라의 친구와 전화

통화 중에 친구로부터 온라인 요가 레슨을 추천 받아 체험해 봤더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맡으면서 요가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을 진정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대책으로 대활약하는 좋은 향기는 티트리와 유칼립투스 오일이 있습니다.(M)



A: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으로 유튜브

음악 사이트를 검색합니다. 음악에 맞춰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T)



A:

옛날 그리웠던 그 때로 타임슬립!

1. 그리운 영상을 본다. '토야마노 킹상'

'제니카타 헤이지'

2. 그리운 가요곡 · 멜로디를 듣는다

특히, 쇼와 가요곡과 70년대 록! ... 장르를 불문하

고 안정되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지요. (Y)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 집순이, 집을 지키다. »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만 있는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순이' 또는 '집돌이'라고 부릅니다. 저 또한 집을 사랑하는 집순이에 속하는데요. 이번 5월 칼럼에서는 집순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순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드리자면, 1. 집 밖에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스케줄로 생각한다. 2. 갑작스러운 약속을 잡지 않는다. 3. 한 번 밖에 나오면 미뤄뒀던 일을 모두 처리한다. 4. 막상 나오면 재밌고 신나게 논다. 5. 외출하고 돌아오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집순이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집순이들은 외출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약속은 부담스럽게 느껴져 피하게 되고 또, 막상 나오면 신나게 놀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활발하고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지요. 집순이들은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좋긴 하지만, 자극적인 활동보다는 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먹거나, 또는 침대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등 편하게 보내는 시간에 재충전을 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집순이가 되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사소한 행복을 느껴보는건 어떨까요?